히르시펠트(C.C.L.Hirschfeld) 정원예술론의 의미와 가치의 현대적 해석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Interpretation of C.C.L.Hirschfeld's Theory of Garden Art in Contemporary Meaning and Its Significance

Zoh, Kyung-Ji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hristian Cay Lorenz Hirschfeld is often regarded as 'a father of landscape garden art.' He was an aesthetics professor and garden theoretician in the 18th century. He put forth the most comprehensive garden theory book in five volumes between 1779 and 1785. His book, *Theorie der Gartenkunst*, was translated and widely circulated in his contemporary. The book, which dealt with diverse aspects of garden art such as history, design, material, and type, urged to promote the prevalence of landscape garden in European continents as well as in Germany. However, there have scarcely been discourses in the Hirschfeld's garden theory. This essay aims to review Hirschfeld's garden thoughts in his book critically and to reinterpret some issues in the contemporary landscape theory and practice.

Hirschfeldian theory was the product of 18th century German Enlightenment and romanticism. At that time, Nature was regarded as divine realm. There was a German affinity with natural world. The spread of reading culture and the fashion of travel literature were another background of the success of his garden literature. Several issues in Hirschfeld garden theory will be discussed here. First, privileging garden art was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in his theory. He emphasized that garden art was the most advanced art form among all art genres. Second, garden art was grounded on the mimesis of nature. The ambiguous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art still existed in garden making. However, garden art can be flourished when utilizing the potency of nature in itself. Third, there wa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mage and the idea in experiencing the garden. Some garden scenes stimulated the related emotional responses such as cheerful and merry, softly melancholic, romantic, solemn etc. Fourth, the movement was the essential aspect of garden art. Motion and emotion are come together in garden experience. To represent the landscape garden style in suitable way, the sketch or image seems to be preferable than the plans and views. Finally, garden art was composing of not only the physical space but also the spirit of place. He maintained the garden art as *hortus moralis* should be a social metaphor.

Hirschfeldian garden theory has often been criticized as the lack of practical power and the old fashioned idea. However, his theory influenced on formulating the idea of public park in 19th century. Moreover, there are still some visionary aspects of his theory such as the reevaluation of garden art, the emphasis of locality and the introduction of *Mittelweg* idea. Recently, gardening culture are prevalent in various realms of art and life. Hirschfeld's garden theory as humanistic landscape theory can provide us some insights in the contemporary practices.

Key Words : Landscape Garden, Sentimental Landscape, Mimesis of Nature

* Corresponding Author : Zoh, Kyung-J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South Korea. Phone: +82-880-1358 E-mail: kjzoh@snu.ac.kr

국문초록

크리스티안 케이 로렌츠 히르시펠트(Christian Cay Lorenz Hirschfeld)(1742-1792)는 18세기 독일의 미학자이자 정원이론가로 당대에 ‘풍경식 정원예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다. 그는 ‘정원예술론’이란 5권의 저작에서 정원이론을 집대성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가장 포괄적인 정원이론서로 여겨진다. 정원역사에서 식물소재, 공간구성요소와 정원유형 등을 다루고 있는 이 이론서는 당대에 유럽에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영국 풍경식정원을 널리 보급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히르시펠트 정원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현대적 관점에서의 주요 쟁점을 해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히르시펠트 정원이론은 18세기 독일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 태동되었고, 자연이 지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문화의 산물이기도 했다. 당대 독서문화가 활성화되고 기행문학이 유행하게 된 사회 현상이 정원이론서가 소비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오늘날 관점에서 히르시펠트 정원론이 기여한 바와 이를 재해석할 수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원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히르시펠트는 정원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전제 아래 자연의 원형 경관과 고안된 정원과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정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고 끌어낼 때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히르시펠트는 특정 정원의 인상과 관념이 연합하여 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그는 유쾌하고 쾌활한 축제와 같은 정원, 온화하고 멜랑코리한 정원, 낭만적인 정원, 장엄한 정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그는 정원에서의 움직임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국면임을 강조하였다. 움직임이 중시되는 풍경식정원에서 풍경화식 재현방식이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다섯째로는 정원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정신이 구현된 장소임을 환기시켰고, 나아가 삶의 은유로서 윤리적 정원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은 18세기에 저술된 이론적 저작으로 현재적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적 함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하지만 그는 공공 정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19세기 도시공원운동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정원예술의 위상제고, 지역성의 강조, 실천이념으로 중재 개념이 그의 이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무엇보다도 정원문화가 새롭게 부각되는 오늘날 인문학적 조경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풍경식 정원, 감정적 경관, 자연의 모방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크리스티안 케이 로렌츠 히르시펠트(Christian Cay Lorenz Hirschfeld)(1742-1792)는 18세기 독일의 미학자이자 정원이론가이다. 당대에는 ‘풍경식 정원예술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다¹⁾. 히르시펠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정원예술에 관한 그의 저작이다. 『정원예술론(Theorie der Gartenkunst)』은 그의 정원론을 집대성한 5권의 책으로 1779년에서 1785년 사이에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동시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Parshall, 1993: 125).

1300페이지에 달하는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이 포괄하는 범주는 다양하다. 정원의 역사, 정원디자인의 원리와 실제, 정원의 소재와 공간구성요소, 정원의 유형과 종류 등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정원애호가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정원애호가들은

그의 저작에서 담고 있는 생각에 크게 고무되었고, 독일에 풍경식 정원이 확산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정원론은 당시 유럽 전역에서 정원디자인의 전범처럼 여겨졌다.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의 정원사인 프란시스코 베티니(Francesco Bettini)는 히르시펠트의 저작을 가장 중요한 정원 이론의 텍스트로 여겼다(Hays, 2002:107). 이 책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의 폭과 깊이는 다른 정원이론서를 압도하였다. 그러나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은 한동안 정원전문가 및 조경학계에서조차도 잊혀졌다. 독일어 이론서의 독자층이 넓지 않았고, 20세기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대적 이슈와 유행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보다 고전적인 정원 지식의 고전(canon)을 다루는 히르시펠트 이론서는 자연히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대중적인 차원의 정원문화의 부흥과 더불어 학문적인 정원연구가 부활하면서 히르시펠트의 정원예술론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히르시펠트의 『정원예술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원론의 특징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의 정원론이 지니는 핵심적인 입장과 철학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은 현재의 관점에서 여전히 흥미롭다. 첫째, 히르시펠트는 미학자로서 정

원론을 구축하였다. 대부분의 정원 이론서들은 실천을 바탕으로 기술된 반면 히르시펠트는 온전히 사유를 기반으로 정원예술의 이론과 실재를 구축하였다. 문화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정원이론의 가능성이 무엇인가는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이다. 둘째, 그의 정원론은 규범과 기술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즉 좋은 정원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와 효용을 지니는가와 같은 근본적 차원에서부터 좋은 정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까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히르시펠트의 규범적 이론은 다소 논쟁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오늘날의 객관적인 이론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쟁점을 껴안고 있는 다른 미덕이 존재한다. 그의 이론적 탐구가 지니는 가치는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히르시펠트 정원예술론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여 오늘날 조경 이론과 실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관련 연구 동향

서구 정원이론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진하다. 최근에 오래된 정원이론서들이 재발간 또는 재번역되는 추세이다. 독어권에서 히르시펠트의 다른 저작과 생애를 다룬 저서도 있지만, 영어권에서 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²⁾.

히르시펠트는 정원역사서나 이론서에서 자주 언급된다. 마리 루이스 구타인은 히르시펠트를 독일정원사에 중요한 인물로 꼽고 있으며(Gothein, 1928: 301), 에렌프리드 크루케르트는 그의 이론이 독일정원디자인의 표준을 제시했다고 언급하였다(Kluckert, 2000: 406). 반면 하노 발터 크루프트는 그의 이론서는 공원이자 정원들 디자인하는 실질적인 기반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에 많이 인용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Kruft, 2000: 269).

영어권에서 히르시펠트에 관한 연구는 린다 파셀의 연구와 번역에 힘입은 바가 크다. 독일문학자인 파셀이 “독일 계몽주의에서 히르시펠트의 정원 개념”이라는 논문에서 해체형식으로 그의 정원론의 여러 국면을 소개하였고(Parshall, 1993), 독일원본을 영어로 축약번역하면서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었다(Parshall, 2001). 이어서 파셀은 히르시펠트의 정원예술론의 고유한 특징을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Parshall, 2003). 존 하인스는 그의 정원 담론이 지니는 인류학적 함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고(Heins, 2001), 마르그레테 플로얀은 그의 영향을 받은 몇몇 덴마크 정원 사례에서 교훈적 성격이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Floryan, 2009). 마이클 리는 그의 정원론에서 나타나는 중재(Mittelweg)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Lee, 2004). 스테파니 크렘스의 연구는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이 오늘날 공공예술 프로젝트

에 미친 영향을 다루었다. 정원에서의 길은 여러 공간을 관통해야 하며 각기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히르시펠트의 이론적 주장은 2012년 카셀 도큐멘타 13 전시 일부인 *The Path*와 베를린의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진 50 kilometers of Files 라는 작품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Krebs, 2014).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 히르시펠트 정원론의 맥락에 관한 이해를 도모한다.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그의 정원론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히르시펠트의 학문 및 사상의 궤적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히르시펠트 정원론이 다루는 구체적인 주제와 쟁점을 고찰한다. 여기서는 그의 정원론이 지니는 독자성과 고유한 이론적 주장을 드러내고자 한다. 4장에서는 히르시펠트 정원론의 지니는 현대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그의 정원론이 지니는 보편타당한 진리와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정원문화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히르시펠트 정원론의 의미와 가치를 반추하면서 우리 시대 조경론 모색과 실천을 위한 단초를 찾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히르시펠트의 정원예술론을 영문으로 번역한 축약본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연구들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았다.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의 형성 배경과 이후 도시공원형성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18-19세기 자연관, 도시공원, 정원론 등을 검토하였다.

II. 히르시펠트 정원론의 형성 배경과 영향

1. 18-19세기 독일의 문화 지형과 정원문화

독일의 계몽주의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늦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했기에 혁명의 논리와 결합되지는 못했다. 독일, 특히 프로이센의 계몽주의는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자리잡아갔다. 히르시펠트는 18세기 독일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낭만주의가 발아되던 시점까지 활동하였다. 보다 정확하게 파셀은 독일 낭만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4년 전 히르시펠트가 세상을 떠났다고 지적하였다(Parshall, 2001: 35). 당시의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가 혼재하던 사회문화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아르놀트 하우스의 분석을 살펴볼만 하다. “18세기의 낭만주의 운동은 유럽 어디에서나 사회학적으로 모순이 많은 하나의 현상이다. 낭만주의 운동은 한편으로는 계몽주의와 함께 시작된 시민계급 해방의 연장 내지 그 상승으로서 평민층의 과다한 감정과 정열을

표현함으로써 상류층의 까다롭고 자제된 주지주의에 대한 대립 운동이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상류층 스스로가 계몽주의의 '파괴적'인 합리주의와 개혁주의에 반대한 운동이기도 하였다..(중략)...영국과 프랑스의 시민계급이 그들의 계급적 상황을 의식하고 또 계몽주의의 성과를 완전히 포기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데 비하여, 독일의 시민계급은 합리주의의 과정을 완전히 마치기도 전에 이미 낭만적 비합리주의의 영향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Arnold Hauser, 1999: 135-136)

17세기 이후 영국, 프랑스에 비해 독일은 전반적으로 시민계급이 위축되었다.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독일은 소국분립주의가 강화되었고, 지방의 영주들은 독립권을 확보하였다. 200여개나 되는 소국가들은 대부분 프랑스 궁정을 모방하여 작고 가난한 나라들이 사치스러운 문화를 모방하였다. 당시 다수의 독일 엘리트들은 프랑스 철학, 문학, 연극, 언어 등을 모방하였지만, 당시의 일부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을 재평가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당시 프랑스 연극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식인에 반대하여 셰익스피어 연극이 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워 독일연극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 공통되는 경향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개인성, 지역적 전통에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는데, 프랑스문화와 대비되어서 영국문화가 이러한 이상을 구현하는데 보다 적합하였다(Parshall, 1993: 127).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시민계급의 대변자이자 계몽주의자 레싱의 영향을 받은 히르시펠트가 프랑스 문화의 영향을 비판하고 영국 문화를 지향하면서 독일정신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당시 지식인들이 성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독일 낭만주의 경향은 영국과 프랑스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특성을 지닌다. 보다 내향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민속이나 숲과 관련된 깊은 애착심에 근거한 신화적 차원이 강조된다. 독일인에게 숲과 자연은 독일 대지나 국민의 정신적 기반이 된다. 원시적 숲인 Urwald과 고향 Heimat는 자연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된다(Rogers, 2010: 42). 독일 낭만주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 깊게 뿌리잡고 있으며, 특히 숲이나 민속은 독일의 대지와 독일인을 동일시되는 독일정신의 표현이다. 독일 낭만주의 예술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에게서 발견되는 상상의 자연은 모국이라는 신화적 의미가 배태되어 있으며, 이 자연에는 도덕적 선과 사회 조화라는 이상이 투영되어 있다(Rogers, 2007: 13).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은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지만, 자연관과 예술관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프리드리히의 경우 모든 진정성 있는 예술작품은 즐겁거나 슬프거나 우울한 명확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프리드리히 예술작품 속의 자연은 눈을 즐겁게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상징이 내포되어야 있

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현된 자연은 실존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가 투영된 존재이다(Hargreaves, 2014: 20). 이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독일 낭만주의 회화와 문학에 일관된 주제이기도 하다.

한편 18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독일에서 문화적 소비의 기반이 되는 일반 대중의 독서문화가 활성화되었다. 18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의 포프나 볼테르에 비해 독일 문필가들은 생계를 꾸려가며 창작하기 어려웠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확산하는 독자층 및 문학 수요와 시설 덕분에 독립적인 문필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독서모임이 늘어나고 상업적인 도서관이 등장하였고, 읽을거리의 주체도 계몽적인 성격을 넘어서 실용적 측면으로 확대되었다. 장서에 교양과 문학, 신학, 역사 등을 다루는 정기간행물이 주를 이루었지만 근대과학, 지리, 여행기 등의 안내서의 비중이 늘어났다. 책읽기는 직업과 관련 없이 시민적인 생활경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Helmut and Munch, 1993).

18세기 후반 일반 대중들에게 요리책이나 여행문학 등의 특별한 장르의 문학 소비가 늘었다. 이러한 취미나 생활과 관련된 서적 소비는 철학과 사상 등의 수준 높은 문학을 넘어서게 되었다. 여행문학의 유행은 영국에서 시작된 그랜드 투어와 관련된다. 존 로크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해외여행과 여행지에서의 아카데미 수학은 효과적인 사교육 방식의 일환으로 귀족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서구 문명의 중심지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를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인 여정이었다. 이 그랜드투어는 전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독일, 러시아의 왕족과 귀족들의 목적지에는 영국이 포함되었다. 독일 안할트테사우의 대공 프리드리히 프란츠는 1756년 건축가를 대동하여 영국, 이태리, 네덜란드를 방문하였다(Seol, 2013: 47). 이 투어의 결실로 만들어진 정원은 데사우의 빌리츠(Wörlitz)이며 이는 독일에 조성된 영국 풍경식 정원의 시초이다. 이 대규모 정원프로젝트는 공국을 아름답게 개선하고자 하는 공공적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풍경식 정원의 전파는 출판과 여행이 결합되는 새로운 유행과도 관련된다. 1778년 루소가 사망하자 팬들은 순례를 시작하였고, 그 유행이 안치된 에르메몽빌(Ermenoville) 일테포플라를 찾아 감상에 젖곤 하였다(Seol, 2013: 352). 이러한 낭만주의 열풍은 픽처레스크 유행과 연관되면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게 하였다. 그동안 방치하였던 고딕 유적지, 무너진 성과 성벽, 교회, 공동묘지 등을 재발견하였다. 이는 이후 풍경화의 주제나 풍경식 정원의 소재가 되었다.

풍경식 정원의 유입으로 촉발된 정원가꾸기의 유행으로 정원문학의 시장도 확대되었다. 1861년 자연과학자이자 과수재배학자인 프리드리히 도흐날(Friedrich Dochnahl)이 편집한 정원 관련 서적과 정기간행물을 집대성한 Bibliotheca Hortensis에는

1750년부터 1860년까지 3000천여 개의 정원 서적 및 자료 리스트를 열거하고 있다. 그만큼 당시 정원문화의 소비가 활발하였다(Parshall, 2007 : 152-153).

독서층의 증대와 새로운 지리와 문화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고, 여행 수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기행문학 유행과 여행 이후 이를 모방하여 정원을 조성의 확산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된 18세기 문화 현상이었다. 히르시펠트의 정원예술론이 대중적 인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원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이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여행을 통하여 체험하면서 이를 실현하고자 했던 대중의 잠재적 욕구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히르시펠트의 생애와 저서

히르시펠트는 1742년 현재의 독일 북부 홀스타인(Holstein)에서 태어났다. 학업을 위해 할(Halle)에 머무르던 1760-63년 사이에 독일과 덴마크, 스위스 일부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여생을 키일(Kiel)대학의 철학과 미학교수로 지냈다. 일반 대중들에게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중요성을 가진 논제들에 대해 알리고자 했던 당시의 계몽운동의 이상에 맞게 그는 저술가로서 대중적인 글쓰기 방식을 지향하였다. 또한 철학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연의 미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였으

며, 많은 언어로 광범위하게 독서를 한 인문학적 정원 이론가였기에 독일 저작들의 자연과 정원에 관한 미흡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었다. 히르시펠트의 여러 저서들과 함께 정원예술론은 전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된다.

그는 이른바 영국식 풍경식정원의 개념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당시 베르사이유로 대표되었던 프랑스 정원 양식에 대한 비판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다. 그의 프랑스 정원에 대한 비판과 영국 정원의 대한 찬사는 다분히 정원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의식해서였다. 히르시펠트에게 있어 프랑스 정원은 절대주의, 질서와 규율 등으로 표상되는 전체적인 정치질서를 반영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영국정원은 자유와 자율, 분권주의 등을 의미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정원에 대한 이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원예술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해석은 18세기 당시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나 스티븐 스위처(Stephen Switzer) 등 영국의 정원이론가들의 일관적 주장이었다. 리처드 페인즈 나이트(Richard Payne Knight)나 우버데일 프라이스(Uvedale Price)의 픽처레스크 정원미학은 혼재, 대조, 연계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미학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면서 정원론이 이상사회와 윤리실천을 내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Robinson, 1991: 1-27). 히르시펠트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은유로서 정원론에 깊이 공감하며 풍경식정원을 주창하였다.

그의 첫 저서는 『전원생활(Das Landleben)』으로 1767년에 출간되었다. 전원생활은 이후 형식과 내용면에서 그가 저술한 수많은 다른 저작에 지향점을 제공하였다. 이 책의 성공으로 그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독일 문학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된다. 이 책에서 그는 전원생활의 미덕은 단순한 삶을 지향하고 도덕적 힘과 윤리적 모델로서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시 전원생활은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주목받고 있었기에 주제의 선택은 시의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유럽 인구의 80%가량은 여전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 농사짓는다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자연과의 도덕적인 조화를 이루는 기쁨을 찾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저서는 1775년 출간된 『별장과 정원예술에 관한 고찰(Anmerkungen Über die Landhauser und die Gartenkunst)』이다. 『전원생활』 이후 이 저서에서는 도덕과 미학에 대한 관심이 중심주제가 되었으며 보다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정 경관이 사람들에게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그의 생각도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어서 1775년에 『정원예술론(Theorie der Gartenkunst)』이 출간되었다. 이후 히르시펠트는 『정원예술론(Theorie der Gartenkunst)』을 5권의 분량으로 확대시켜 출판하게 된다. 1779년과 1785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독어와 불어로 동시에 발간되었으며 5권 모두 포함하

Figure 1. Christian Cay Lorenz Hirschfeld's Portrait (C.C.L.Hirschfeld)

여 대략 1,300페이지에 달하며 대략 250개의 삽화를 포함하고 있다(Parshall, 2001: 4).

Figure 2. The Front cover of the *Theorie der Gartenkunst* Published in 1780 and 1782.

정원예술론의 구성방식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실험이었다. 모자이크 방식의 글쓰기로서 다양한 형식의 글이 혼합되어 있다. 국내외의 정원에 대한 인상과 평가, 건조한 산문과 로코코식 운문, 좋은 정원에 대한 다른 저술가의 인용 등이 혼재되어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명상문, 철학에세이, 시집, 소책자, 여행기 등의 장르가 혼합되어 있다. 히르시펠트의 사고의 폭과 깊이는 당대 사상가, 작가, 정원이론가 등의 다양한 인용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그의 저작이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히르시펠트의 대중적 글쓰기 때문이다. 공간을 상상할 수 있게 몰입하게 하는 묘사나 독자에게 행동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게 하는 시적인 표현은 히르시펠트 저작의 또 다른 묘미이다. 히르시펠트는 1782년부터 1789년까지 '정원달력'(Der Gartenkalender)'이라는 잡지를 편집하기도 하였다.

그는 생애를 통하여 몇몇 정원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하였고 말년에는 잠시 뉘스터브르크(Dünsterbrook) 나무농장에서 일하였다. 히르시펠트는 실천가보다는 이론가로서의 길을 걸었다. 정원이론에서 답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건 상 많은 장소를 방문할 수 없었고 도처에 산재한 정원공간에 대한 지식은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해야 했다. 그가 높이 평가하고 주장한 영국의 풍경식 정원을 그는 정작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원예술론의 여러 사례와 다방면의 지식에 근거한 이론서의 가치는 높이 평가받지만, 그가 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조성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지 못하였기에 지니는 한계도 존재한다.

III. 히르시펠트 정원론의 특징과 현대적 해석의 문제

1. 정원예술의 위상과 고유성

히르시펠트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미학적 세련함과 윤리적 가치를 객관화시키는 동시에 문명화된 행위가 정점에 있을 때 정원예술의 예술적 성과가 성취된다고 한다(Parshall, 2001: 10). 히르시펠트는 정원예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정원예술은 자연 그 자체이고 풍경화는 자연의 복제라는 맥락에서 정원이 회화나 조각의 예술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이 자연의 복제보다 우수한 것과 같은 이치로 정원예술은 풍경화보다 한 차원 높은 예술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원예술이 지닌 고유한 특성인 잡다함, 변덕스러움, 덧없음이 그 아름다움의 핵심을 이루고 다른 예술을 능가하는 특성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한다(Parshall, 2001: 19). 히르시펠트는 그의 스승인 요한 조르그 줄쩌(Johann Georg Sulzer: 1720-1779)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그 책 서문에서도 줄쩌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Hirschfeld, 2001: 69). 줄쩌는 당시 독일 미학자로서 최초로 정원예술을 순수 예술에 포함시켰으며, 『순수예술에 관한 일반이론(Allgemeine Theorie der schönen Künste, 1771-74)』에서 '자연은 최고의 정원사'라고 하면서 정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이끌어낼 때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줄쩌는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인 건축, 회화, 조각과 같이 정원예술 역시 같은 종류의 예술이라 구분한다. 더불어 정원예술은 다른 어떤 예술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높은 재능을 요구한다고도 하였다.

히르시펠트도 그의 입장에 공감하며 정원예술론 4권에서 정원예술가의 기초 소양을 열거하였다. "정원사에게 어린 시절부터 언어와 순수예술을 교육시키고 좋은 취향을 가지게 해야 한다. 공부와 관찰을 통하여 식물학을 습득하게 하고, 회화, 건축, 조각의 기본적인 원리를 익숙하게 하고, 자연을 여러 시간에 다양하게 조망하면서 관찰하면서 경관의 풍부함과 힘을 가까이하게 하라. 동시에 인간들의 심성과 감정의 전개과정을 이해시키고, 그들 스스로 자연을 증진시키는 재능, 지식, 경험, 창의성, 숭고한 소명을 즐겁게 일깨우고, 예술가를 지지하고 예술의 가치를 높이 여기도록 하라(Hirschfeld, 2001: 346)." 히르시펠트가 상세하게 언급한 정원예술가의 기초 교육 항목을 보면 인문학과 자연과학, 감성교육에서 인성교육까지 통합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연의 모방과 정원

정원예술은 자연을 모태로 한 예술이지만 원생 자연과는 달리 자연을 문화화한 정교한 예술이다. 자연과 비자연의 관계는 때로는 혼재되고 때로는 결합되면서 정원예술이 지닌 매력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실체가 가시적으로 포착되지 않기도 하는

모순적 조건이 된다. 자연의 모방으로서 미메시스에 관한 문제는 18세기 레싱, 칸트, 줄쩌에 이르기까지 중심적인 주제였고, 히르시펠트의 정원예술론에서도 핵심 쟁점이 된다.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원생 자연과 만들어진 자연과의 모방적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히르시펠트는 정원예술은 재현되는 대상과 재현하는 것, 즉 미디엄(medium)으로 자연과 결과물로서의 정원은 구별이 모호한 예술형태라 지적한다(Parshall, 2001: 13).

히르시펠트는 정원론 1권에서 정원예술의 두 가지 일반적 법칙을 설명한다. 첫째는 정원예술가는 적절한 효과를 얻도록 자연의 요소를 선택해야하고 그 요소들을 연관시키고 배열하여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도록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이러한 요소들의 감정적 잠재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다. “정원은 우리들의 상상력과 감각을 강하게 촉발한다. 그 정도는 아름다움이 단지 자연으로부터만 존재할 때보다 더 훨씬 강력한 것이다(Hirschfeld, 2001: 148).”

정원에서 작은 기념물이나 파빌리온, 시가 새겨진 벤치, 전원풍의 교량에서 예술이 기여하는 바를 발견할 수도 있고, 이 보다는 덜 인공적인 폐허, 폭포, 연못 및 픽처레스크한 방식으로 심겨진 나무들에서도 인위적인 개입을 발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원에서도 자연은 우위를 점한다. 자연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히르시펠트 정원의 기본적 전제이다(Parshall, 2001: 9). 자연과 문화가 정교하게 결합되어 표현된 것이 정원이지만, 히르시펠트에 있어 자연 없이 문화만 존재하는 정원이란 있을 수 없다. 문명화가 보다 세련된 형태로 발전하더라도 자연으로의 귀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히르시펠트는 중시하고 있다.

3. 관념연합론과 감정적 경관

히르시펠트는 정원예술론 1권에서 외부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내적인 영혼을 밝게 하고, 공상을 풍부하게 하고 감정을 세련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irschfeld, 2001: 149). 그에게 있어 정원은 모름지기 모든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어야 하는 것으로 때로는 유쾌한 기쁨이나, 우울함과 수심, 또는 놀라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안식과 평화를 얻기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곳이다. 그는 감정의 차이에 따라 정원공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 유쾌하고 쾌활한 축제와 같은 정원, 둘째, 온화하고 멜랑콜리한 정원, 셋째, 낭만적인 정원, 넷째, 장엄한 정원, 그리고 이러한 정원들이 조합된 정원들이다. 이러한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정원 공간 유형은 물리적 공간에 성격을 연관시키는 것이므로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다소 생경하다. 그러나 18세기 당시에는 보편적인 관점이었다. 당대의 미학이론에 의

하면 아름답거나 숭고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닌 사물과 관련된 관념의 연상이다. 특정 형태가 처음 제시되고 이와 연관된 사고의 고리가 이끌어 나옴으로써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Clark, 1943: 165-189). 인상과 관념이 화학작용과 같이 연합하고 그것들은 마음 속 습관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당시 정원에서 폐허 등에 대한 관심은 감정적 경관을 형성하게 한 주요한 이유였다. 정원이라는 공간은 물질 세계의 덧없음, 자연의 소멸과 생성 등은 시간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히르시펠트의 이론서 5권에서 하루 중 어떠한 정원 혹은 특정 장면과 어울리는 시간을 선별하여 아침정원, 오후정원, 저녁정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정 정원공간이나 장면이 변화하는 시간에 적절히 어울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녁정원의 최상의 부지는 서향의 낮은 언덕과 계곡 그리고 주변 숲과 산, 광활한 원경이 펼쳐지는 곳이며 호수가 평화로운 정경을 만들어내는 곳이라 묘사하고 있다(Hirschfeld, 2001: 387).

특정 시간의 특정 경관이 하나의 감정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도식적인 연관관계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연출된 경관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관점은 오늘날 경관 연출을 즉물적인 대상이나 공간의 조합으로만 이해하는 현실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4. 움직임의 정원과 재현 방식

히르시펠트는 정원예술 경험에서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다. 첫째는 예술가의 아이디어, 둘째는 구현의 수단, 셋째는 감상자의 마음 속에서 아이디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미학적 대상으로서 정원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경험되지 않고, 방문자가 자연공간을 움직이면서 감정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Hirschfeld, 2001: 146-150). 그에게 있어 움직임은 정원의 의미를 창조하는 데 기본적인 것이다. 공간 경험의 차원에서 보면 풍경식 정원이 정형식 정원보다 원로를 따라가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걷는 행위를 통해 정원의 다양한 장면을 마주하고 조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동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가 주체적일 감정을 이입하면서 개입한다. 자연과 방문자가 상호 교감하고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늘이 사라진다, 땅이 솟아오르다 등의 표현은 자연풍경으로서 감정이입의 예이고 이는 히르시펠트의 표현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움직임과 감정의 근친성은 18세기 독일어에서도 나타나는데, Bewegung의 motion과 emotion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였다(Parshall, 2003: 44). 물리적인 공간에서 움직임으로 감정적, 정서적인 반응이 변화한다는 것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정원예술가는 외부 풍경이 어떠한 내적인 감정을 유도하는지 잘 파악해야 하고, 다양한 여러 감정의 조화로운 연

속이 이루어져 한다. 당대에 걷기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걷기는 걷는 사람들을 윤리적 고양으로 이끄는 정신적 행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Parshall, 2003:43). 히르시펠트는 시공간의 움직임에 통하여 기억과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것이 정원예술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 움직임이 중시되는 정원 모습을 재현하는데 2차원적 이미지는 근원적 한계가 있다. 그것은 너무 정적이고 특별한 순간에 한정되어 있고 곧 옛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원은 자연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히르시펠트 정원론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회화적 이미지가 표현하지 못하는 시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론서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250여개 에칭 드로잉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 풍경이 아닌 다수의 건축 도면도 포함되어 있다. 정원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있어 장면을 보여주는 풍경화식 드로잉이 유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부의 정원 풍경은 요한 하인리히 브란트(Johann Heinrich Brandt)에게 의뢰하여 그려진 것들이고 이는 실제 경관의 묘사라기보다 상상에 의해 연출된 풍경이다. 이러한 드로잉에서는 정원 한 장소의 풍경뿐 아니라 감상자들이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는지 행위가 담겨져 있다. 정원에서 뱃노래를 하고 벤치에서 책을 읽는 등 정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묘사되어 있다.

Figure 3. Johann Heinrich Brandt's Drawing
(Source: Hirschfeld, C.C.L. ed. by Linda Parshall, 2001, Theory of Garden Ar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197)

이러한 스케치 형식의 드로잉은 사람들이 풍경식 정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히르시펠트는 정원 전망을 보여주는 드로잉이 생명력 없는 평면도보다 교훈적이고 생동감 있다고 지적하였다(Hirschfeld, 2001: 69). 히르시펠트 이론서에 있는 브란트의 드로잉은 윌리엄 켄트(William Kent)의 드로잉과 유사성을 지닌다. 켄트는 무대디자이너에서 정원가로서 직업을 바꾼 후 여러 정원을 설계하였지만 단 한 장의 평면도도 남기도 있지 않다(Hunt, 1987). 모든 설계 드로잉은 풍경화식 스케치에 의존하였다. 풍경식정원은 정원 원로를 통해 이동하는 풍경의 연속과

조합이 중요하기에 스케치는 평면도와 조감도에 적합하였다. 브란트에 의해 그려진 히르시펠트 이론서의 드로잉들은 풍경식정원의 공간 드라마를 재현하기에 적절한 방식이었다.

5. 정신의 구현으로서 인문학적 정원론

히르시펠트는 정원론 3권에서 정원은 '지혜의 학교'라고 선언하고 있다(Hirschfeld, 2001: 318). 외부의 완벽한 자연세계가 내면화되어 이성과 감정이 결합되어 있다. 정원에서 교육받는 것은 시민을 계몽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정원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정신이 구현된 구성체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원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단지 유행과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떠한 삶을 지향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히르시펠트는 자연적 정원(natural garden)은 당대의 사회적 메타포로서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창한다. 그는 자연적 정원(natural garden)이 시대의 철학, 정치,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정원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자연적 정원은 반독재적 정치질서를 지양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보았다(Parshall, 2001: 25-33). 히르시펠트는 정원 디자인의 관행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혁적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관점에서 당시 대부분의 정원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자연적 정원(natural garden)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그의 정원론이 지니는 두드러진 특징은 경관 및 정원의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중시하는, 즉 인문학적 정원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존 하인스(John P. Heins)는 히르시펠트 정원론에서 등장하는 성격(character)의 개념을 환경, 국민, 국가로 확장하면서 정원의 인류학적 함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당대는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자연환경도 인간성의 확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원공간의 성격이 다양하듯이 한 국가의 정원에서도 국민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영국식 정원은 이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는 계몽주의 정신에 담고 있다고 보았다(Heins, 2001: 275-277). 히르시펠트는 오히려 고전주의의 세계의 정원 개념, 특히 그리스의 정원 개념이 오히려 자연적 정원에 가깝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의 정원개념을 국민들의 기질이 담긴 정원이라고 생각하였다(Hirschfeld, 2001: 75-76).

히르시펠트의 이상적인 정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실용적 가치를 넘어서 인류생활에서 인류적 규범을 제시하는 도덕적 정원(hortus moralis)이다(Floyan, 2010: 246-256). 이러한 그의 생각은 정원론에 마지막 문장인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이 터전을 가꾼다"는 신학적 입장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는 정원론 1권에서 정원예술이 인류의 터전을 아

름답게 만드는 자연 모방의 차원을 넘어서 신성성을 고양하고, 행복을 증진하고 정신의 품격을 높이며 함께 사는 공동체에 축복을 제공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Hirschfeld, 2001: 150). 이러한 공동체를 위하는 정원이 행복을 증진하고 윤리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생각은 오늘날 왜 공공을 위한 조경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히르시펠트는 정원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도덕적 교화를 추구하며, 국가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오늘날 국민복지의 차원과 행복담론과 관련하여 공공정원 혹은 공원의 철학을 구축하는데 있어 깊게 성찰해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Ⅳ.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의 기여, 의의와 한계

1. 기여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첫째, 그는 정원론 3권에서 공공 정원에 국가를 빛낸 애국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나 기념물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Hirschfeld, 2001:135). 영웅이건 시인이건 현자이건 공공장소에 이들의 업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교훈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베를린 티어가르텐의 설계자 피터 요제프 르네(Peter Josef Lenne)는 국민훈과 애국적인 조각상과 전쟁기념관을 티어가르텐에 포함시키게 된다.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은 국가나 도시가 공동체의 공공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어야 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공공 정원에 도덕적 고양과 시민교육을 위하여 공동체를 빛낸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는 이후 도시공원에 기념성을 부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Dumpelmann, 2013: 4).

둘째로, 히르시펠트는 정원의 개념을 공공 정원(public park)으로 확대하였으며, 근대적 공원 개념을 주창하였다. 그는 열악한 도시환경에 자연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시중산층도 귀족층처럼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누구나 생활 주변이나 도시경계에 적절한 정원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irschfeld, 2001: 406-409). '시민정원(Volksgarten)'은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모든 계층과 개인에게 유익해야 한다. 정원론 1권에서 '시민정원'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의 아름다운 스펙터클을 창출하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 모든 사람이 신체의 건강을 위한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모든 사람이 즐겨야 하는 곳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히르시펠트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

는 '보고 보여 지는(to see and to be seen)' 공공공간의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Hirschfeld, 2001: 135).

프리드리히 루트비히 스킨(Friedrich Ludwig Sckell)의 히르시펠트의 영향으로 뮌헨에 Englisher Garten를 조성하였다. 이 공원은 정원론 5권의 다양한 방문객을 위하여 다양한 매력요소가 있어야 하고 정형식 정원의 산책로, 분수, 마차 등의 요소와 교혼적 목적의 시설이 필요하며, 즐거움이나 운동, 만남이나 사교 등을 위한 공간이 누구나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 민주주의 이상이 구현되어야 한다(Hirschfeld, 2001: 408)는 히르시펠트가 기술한 공공정원이 지녀야 할 여러 속성을 잘 반영하였다. 이후 히르시펠트의 공공정원에 대한 생각은 도시공원의 개념을 발전 시켜준다. 뤼클러 무스카우(Fürst von Pückler-Muskau)는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히르시펠트의 저작을 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뤼클러의 저작인 Hints on Landscape Gardening와 무스카우공원(Muskau Park)은 히르시펠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뤼클러의 공원관은 찰스 엘리엇(Charles Eliot)에 의해 미국에 소개되면서 미국 조경에서 영향을 미친다(Pückler-Muskau, 2014). 이렇듯 히르시펠트의 공공정원에 대한 생각은 이후 간접적으로 서구 공원운동으로 이어진다.

2. 한계와 의의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에 대한 비판은 그의 정원예술론이 단순한 이론적 저작의 한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에서 시작한다. 즉, 접근 방식이 너무 분석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점과 그가 실제 시공에 밝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론 대부분이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 등이다(Parshall, 2001: 3). 또한 그가 주창하는 영국정원을 정작 그는 실제로 방문한 적이 없고, 실제 정원이라는 현장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암체어 프 로페서(armchair professor)라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예술 양식으로서의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이 정원이라는 현실적, 실제적 주체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고 조성된 이후의 미학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

비록 결과물은 실제적인 정원이 아닌 텍스트이었지만, 한편으로 그는 '독서는 여행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그의 생각의 맥락과 같이 결국 텍스트에 앞서 경험을 최우선적 가치에 두었다. 따라서 그의 텍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험' 혹은 감정 표현의 극대화를 위한 '효과'의 한 수단이었으며 이는 당시 그의 이론이 실천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데 중요한 잠재요소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이는 이론적 저작이 던지는 실천적 유용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때문에 그는 정원예술이론의 권위자가 될 수 있었으며, 당시

실무 지향의 조경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서도 다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이론적 정원론에 담겨있는 그의 실천적 영향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원예술이 어떻게 일상적인 삶과 관련되는지 그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를 설파하고 있는 히르시펠트의 저작들은 일반 대중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킨다. 정원을 가꾸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정원철학이다.

18세기에 저술된 히르시펠트의 정원예술론은 이미 300백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저술 당시와 사회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의 이론은 '정원'이라는 사회적 의미가 달라진 오늘의 현실에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단지 오래된 고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원론은 현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던져준다.

첫째, 정원을 예술의 한 형식과 진지한 학문의 형태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히르시펠트에게 정원은 결출한 예술 형식이며 회화보다 월등한 미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정원을 최고조로 문명화된 행동을 재현하여 미적인 세련됨과 윤리적인 가치 모두를 객관화하여 나타내고 여기에 설계자의 이념을 구현하는 장으로 생각했다.

둘째, 지역성의 강조이다. 독일의 풍경식 정원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게 되지만 가장 종합적인 형태를 나타냈다. 독일의 정원은 초반에는 영국의 풍경식 정원보다 프랑스의 정형식 정원의 형태를 도입하였다. 이는 히르시펠트의 영향이 컸다. 히르시펠트는 영국 풍경식 정원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독자적인 독일의 풍경식정원의 원리 제시하였다. 그는 영국식 풍경식정원을 독일에서는 모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한 기존의 정형식 정원을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형태를 넘어 독일 정신을 담은 정원을 강조하였다(Kruft, 1994: 268). 이는 조경 실천에 있어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지역성을 어떻게 추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져준다.

셋째는 이론과 실천에서 중재적 입장의 추구이다. 히르시펠트는 영국 풍경식정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지나치게 경도되는 것은 삼가는 중용적 균형감각의 실천을 지향한다. 이를 독일어로 *Mittelweg*이고 영어로는 *middle path*라고 일컫는데 두 가지 극단을 중재하며 접점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18세기말 '중재'라는 개념이 부각되었던 것은 사상적으로 뿌리 깊은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측면도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에서 어떻게 고유한 독일문화를 찾아내고자 하는 방법으로도 모색되었다. 중재라는 이념은 자연과 예술, 이성과 감성, 언어와 이미지 등 두 가지의 세계가 공존하면서 결합되는 정원이라는 영역에서 잘 표현될 수 있다. 중재의 이념은 오늘

날의 생태와 예술, 계획과 설계, 과정과 결과물 등의 이분법적 갈등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조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V. 결론

20세기 후반 이후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오래 동안 잊혀졌던 정원예술이 다시 부각 받고 있다. 정원예술은 인간과 땅을 자연을 매개로 중재하는 예술형식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현대의 이분화 된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정원예술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이다. 정원예술은 문화와 자연, 사고와 물질, 인간과 자연 등을 연결 짓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개별 정원에서 쾌락과 실용, 언어와 이미지, 경험과 은유, 현실과 꿈이 혼재되어 투영되어 있다. 두 가지 다른 세계를 중재하는 정원 예술은 현대사회의 즉물적 사유방식과 이로 초래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적 가능성을 열어준다. 오늘날 물질 만능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원예술은 우리 주변에 결여된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적인 행위의 일종이다. 21세기 정원예술은 예술의 장르로서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행위로 그 위상과 가치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정원에 관한 역사나 담론도 그 어느 때보다 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정원론의 생산은 그리 많지 않다.

더불어 정원 이론의 중요성도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정원 예술의 가치, 문화사적인 의미를 확장하고, 창조적 지적 행위로 정원담론의 지평 확장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르시펠트 정원론을 재조명하고 음미해보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다.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에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원예술의 지역성과 이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히르시펠트는 당시 영국 정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풍경식 정원을 예찬하고 전파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역에 적합한 독일식의 정원을 창출할 것을 주창하였다. 설계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담아야 할 콘텐츠에서 고유한 정원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구현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18세기 철학적 개념으로 중재라는 의미를 정원예술에서도 구현하고자 했다. 당대 영국식과 프랑스식 다른 두 가지 스타일을 중재하면서 독일식 정원 스타일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오늘날 정원예술이 지닌 딜레마를 극복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정원예술이 현대적 언어로 발전하기 위하여 고유한 지역성을 지키면서 서구적인 정원예술과 중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히르시펠트의 정원론에서 이러한 실천적인 교훈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정원예술이 지닌 이율배반적 속성의 이해이다. 히르시펠트는 정원예술의 모순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정

원예술은 패러독스를 지니고 있다. 자연과 비자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요소로 구성된 지적인 결과물이다. 자연이면서 인공적이고, 인공적이면서도 자연적 기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정원예술의 발전은 문화의 과정에서 취향이 세련화되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순수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정원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면 이는 미적 취향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자연과의 일체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한다. 그렇다면 정원예술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보다 인위적이 되고 자연에서 멀어지는 것인가?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간다고 히르시펠트는 지적한다. 모든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정원예술은 자연으로 회귀하는 형태의 정교한 단순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18세기 히르시펠트의 예지력은 21세기에도 유효한 듯하다. 그의 정원에 관한 비전은 문화를 매개로 하면서 자연과의 근원적인 일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히르시펠트는 미래의 정원예술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문화를 매개로 하지만 근원적인 자연으로 회귀하는 정원예술의 모순적 속성을 간파하였다. 정원예술도 회귀와 복고를 반복한다. 미래의 정원예술의 전개는 18세기 정원예술이 새롭게 찾아낸 영토와 지평을 반추해볼 때 어렵פות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 1) 독일의 풍경식정원인 Seifersdorfer Tal에는 히르스펠트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었고, '풍경식 정원예술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 주 2) 독일에서의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Wolfgang Schepers: *Hirschfelds Theorie der Gartenkunst 1779-1785*, Werner, Worms, 1980., Wolfgang Kehn: *Christian Cay Lorenz Hirschfeld, 1742-1792, eine Biographie*, Werners, Worms, 1992., Michael Breckwoldt: *Das „Landleben“ als Grundlage für eine Gartentheorie. Eine literaturhistorische Analyse der Schriften von Christian Cay Lorenz Hirschfeld*, Minerva, München 1995.

REFERENCES

- Hauser, A.(1999) Social History of Art and Literature, trans. by Yeon M. U and Ban S. W, Seoul: Changjak Bipyugsa.
- Helmuth, K. and Munch, P.(1993). *German Society and Literature in the 18th Century*, Chuncheon: Kangwon University Press.
- Baridon, M.(2004). On Som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Landscape Garden, Historic Gardens Today, ed. by Michael Rohde and Rainer Schomann, Leipzig: Edition Leipzig.
- Clark, H. F.(1943). Eighteenth Century Elysiums: The Role of Association in the Landscape Movement, Journal of the Warburgh and Courtauld Institutes, 6: 165-189.
- Dumpelmann, S.(2013). Introduction, *A Cultural History of Gardens Vol. 5, In the Age of Empire*, London: Bloomsbury.
- Floryan, M.(2009). Hortus Moralis: C.C.L. Hirschfeld and Other Eighteenth-Century Actors in the Danish-German Borderland,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and Designed Landscape, 29(4): 246-256.
- Gothein, M. L.(1928). A History of Garden Art, Translated by Archer Hind, London: J. M. Dent and Sons Limited.
- Hargreaves, M.(2014). Introduction, A Dialogue with Nature: Romantic Landscapes from Britain and Germany, ed. by, Matthew Hargreaves and Rachel Sloan, New York: The Morgan Library and Museum.
- Hays, D.(2002). Francesco Bettini and the Pedagogy of Garden Design in Late Eighteenth-Century, Tradition and Innovation in French Garden Art, ed. by John Dixon Hunt and Michel Conan, Philadelphia: University Pennsylvania Press.
- Heins, John.(2001). Characters of Environments, People, and Nations in C.C.L. Hirschfeld's Theorie der Gartenkunst(1779-85), Lessing Yearbook, 33: 277-294.
- Hirschfeld, C.C.L. ed. by Linda P.(2001). Theory of Garden Ar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Huh, M. S. and Zoh, K. J.(1997). Iconography and Iconology as interpretative frameworks of the garden : with references to Villa Lante and Stourhead,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5(2): 53-62.
- Hunt, J. D.(1988). William Kent: Landscape Garden Designer, London: A. Zwemmer Limited.
- Hunt, J. D.(2000). Greater Perfections: The Practice of Garden The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unt, J. D.(2002). The Picturesque Garden in Europe, London: Thames & Hudson.
- Kim, J. B. and Koo, B. H.(2009). Study on the Eastern and Western View of Nature for Developing Traditional Eco-Philosophy in Korea,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7(4): 40-50.
- Kluckert, E.(2000). European Garden Design: From Classical Antiquity to the Present Day, Cologne: Koneman.
- Kreh, S.(2012). Stimmungsraume, Zur Aktualität eines Landschaftskonzeptes des Aufklärung, November.
- Kruff, H. W.(1994).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From Vitruvius to the Present,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Lee, M. G. Jr.(2004). The German 'Mittelweg': Garden Theory and Philosophy in the Time of Ka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Parshall, L.(1993). C.C.L. Hirschfeld's Concept of Garden in the German Enlightenment, Journal of Garden History, 13(3): 125-171.
- Parshall, L.(2001). Introduction, Theory of Garden Art by C. C. L. Hirschfeld, ed. and trans. by Linda Parshall, pp. 1-54.
- Parshall, L.(2003). Motion and Emotion in C.C.L.Hirschfeld's Theory of Garden Art, Landscape Design and the Experience of Motion, ed. Michel Conan,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pp. 35-51.
- Parshall, L.(2004). Landscape History: Pückler-Muskau, The Green Prince of Germany, In Nature in German History, ed. by Christof Mauch, New York: Berghahn Books, pp. 48-73.
- Parshall, L.(2007). Hirschfeld, Pückler, Poe: The Literary Modeling of Nature, GHI Bulletin Supplements, 4: 149-169.
- Rogers, E. B.(2007). What is the Romantic Landscape? GHI Bulletin Supplements, 4: 11-24.
- Rogers, E. B.(2010). Romantic Gardens: Nature, Art, and Landscape Design, New York: The Morgan Library & Museum.
- Rogers, E. B.(2014). Preface, 2014, Hints on Landscape Gardening, by Hermann Prince Von Pückler-Muskau, Basel: Birkhauser.
- Seol, H. S.(2013). *Grand Tour: The Final Stage of Elite Education*, Seoul: Ungin Gisikhouse.

원 고 접 수 일: 2014년 8월 02일

심 사 일: 2014년 8월 20일(1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8월 20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